【제52회 전남 서남부지역 14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 2018. 9. 19(수) 10:00

축 사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명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2회 전남 서남부지역 14개 시·군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해 주신 각 시·군별 선수 여러분께도 완도군민을 대표하여 환영에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완도군 게이트볼 이상진 협회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도를 찾아주신 전라남도 게이트볼 장귀남 협회장님과 서남부 게이트볼 손홍식 협회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완도군의회 허궁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게이트볼 회원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게이트볼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노인회 분회마다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고, 경기장에서는 사시사철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함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운동이 게이트볼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움직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더없이 좋은 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하면서 계속 점수를 계산하는 두뇌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기와 대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운동이 게이트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게이트볼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건강도 챙기시고, 우정도 돈독히 하시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